

류현진, 포스트시즌 선발 시험대 '절반의 성공'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 선발 등판 4 2/3 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 호투... 후반기 평균자책점 2.36

포스트시즌 선발 합류의 시험대에 오른 류현진(30·LA 다저스)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4회까지 깔끔한 투구를 선보였지만, 5회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채 50닝을 채우지 못한채 마운드를 내려간 것은 찝찝한 부분이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4 2/3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19명의 타자를 상대로 98개의 공을 뿌린 류현진은 56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고 볼넷 2개를 헌납했다.

포스트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두고 '무한 경쟁' 중인 류현진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저스의 포스트시즌 선발진 구성은 커다란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포스트시즌 선발진은 4명으로 꾸리는데 다저스는 선발 자원을 6명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와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일본인 투수 다쓰유키 유의 포스트시즌 선발진 합류는 확정적이다.

두 자리가 남은 상황에서 리치 힐 일렉트릭 우드 마에다 겐타 류현진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수술 등으로 2년간 재탈출한 메달리다 올 시즌 복귀한 류현진은 전반기에 점성기적 구위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후반기에 연일 패투를 선보이면서 포스트시즌 선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후반기에 나선 9경기에서 40%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은 2승 1패 평균자책점 2.36으로 호성적을 냈다.

이에 현지 언론은 후반기 성적대로 류현

진이 포스트시즌 3선발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미국 스포츠 매체 '펜사이드'에서 다저스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저스 웨이'는 "류현진이 10월에 3선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저스 웨이는 "류현진과 우드 힐, 마에다 중 뚜렷하게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없다.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심각한 실망을 안긴 적도 없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최근 5경기 뿐 아니라 후반기 평균자책점에서도 다른 선수들에 앞섰다.

다저스 웨이는 "통계 자료를 통해 봤을 때 류현진이 커쇼, 다쓰유키에 이어 3선발을 맡아야 한다. 류현진의 후반기 성적은 화려했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지가 확고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6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60닝 1실점으로 호투한 류현진은 로테이션 대로라던 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선발로 나서야 했다.

류현진의 몸 상태에 이상도 없었지만,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휴식을 줘야한다"는 애매한 이유를 앞세워 류현진의 등판을 미뤘다.

이로 인해 당초 13일 시애틀에 투구를 할 예정이었던 류현진은 12일 경기기 새벽까지 이어진 탓에 불행 투구만 해야 했다.

혼란스러운 일정 속에 확정된 류현진의 이날 선발 등판은 또다시 포스트시즌 선발 진입을 위한 시험대로 여겨졌다.

다저스 웨이는 "현재로서는 류현진이 3선발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각 선발 투수들이 앞으로 2~3번 더 등판하게 될 것이다. 이후 성적이 포스트시즌 선발이 누가 될지 판단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4 2/3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게다가 이날 경기는 워싱턴과 다저스의 비리보는 포스트시즌으로 여겨져 포스트시즌 선발 합류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였다.

큰 무대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류현진은 4회까지 견고한 투구를 선보이면서 포스트시즌 선발 진입에 청신호를 켜다.

2회말 1사 후 라이언 짐머맨, 하위 켈트릭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1, 2투의 위기를 맞았지만, 마이클 타일러를 삼진으로 슈아낸 후 맷 윌터스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해 실점을 막았다.

3회에도 1사 후 대니얼 머피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짐머맨과 켈트릭을 삼진과 땅볼로 처리하고 이닝을 끝냈다.

류현진은 5회에도 아웃카운트 2개를 순조롭게 잡으며 호투를 이어갔지만, 스티브 스트라스버그에게 볼넷을 내주더니 트레

이 터너도 볼넷으로 내보냈다.

투구수가 98개까지 늘어나자 로버츠 감독은 일찌감치 교체를 결정했다.

아웃카운트를 1개만 잡으면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출 수 있었고, 투구수도 한 타자 정도를 더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로버츠 감독이 교체를 결정한 것은 류현진의 몸 상태 등에 대한 신뢰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저스가 아직 13경기 정도를 더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류현진은 한 차례 더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시즌 선발 합류를 위한 최종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는 다음 등판에서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류현진의 숙제로 남았다.

/김민근기자



추신수, 에인절스전 4타수 1안타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세 차례 타석에서 연달아 삼진을 당한 뒤 안타를 때려냈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에인절스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추신수는 2경기 만에 안타를 생산했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62(51타수 13안타)를 유지했다.

1회초 무사 1루 상황에서 상대 선발 개러 리처즈를 상대한 추신수는 볼카운트 1B2S에서 5구째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해 삼진을 당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3회 스탠딩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6회 또다시 선두타자로 나서 삼진을 당했다.

텍사스가 3-1로 앞선 8회 무사 1루 상황에서 상대 구원 제시 차베스를 상대한 추신수는 2구째 커브를 노려져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의 안타로 3루까지 나아간 달리노 드실즈는 엘비스 앤드루스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더 이상 진투하지 못했다.

텍사스는 에인절스를 4-2로 제압했다. 길고 긴 5연패의 사슬을 끊은 텍사스는 7승째(7패)를 따냈다.

/김민근기자

EPL 맨유, 에버턴에 대승... 시즌 5경기 무패행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버턴을 대파하고 무패 행진을 달렸다.

맨유는 1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라포드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4-0으로 이겼다.

막강한 화력을 뽐낸 맨유는 개막 후 5경기에서 4승 1무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맨유는 전반 4분 안토니오 발렌시아의 그림같은 발라슛으로 포문을 열었다.

발렌시아는 네마냐 마티치가 내준 공을 페넬티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슈트로 연결, 에버턴의 골망을 흔들었다.

맨유는 이후에도 공세를 지속했으나 로멜루 루카쿠의 결정적인 슈트 미타는 등 추가골 확보에 애를 먹었다.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맨유는 후반 38분 헨리크 미키티어의 오른발 슈트로 두 골차를 만들었다. 맨유는 후반 44분 루카쿠의 골과 후반 추가시간 앤서니 마살의 페널티킥을 묶어 대승을 완성했다.

에버턴은 승점 4점(1승1무3패)에 그치면서 강등권인 18위에 머물렀다. 지난 시즌까지 맨유에서 뛰었던 웨인 루니는 예전 홈 팬들의 기립 박수 속에 등장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민근기자

'킹스맨: 골든 서클' 흥행 돌풍 예고

예매 순위 1위 · 점유율 20.1% · 매출액 1억9300만원

킹스맨:골든 서클(감독 매슈 본)이 개봉 열흘이나 앞두고도 예매 순위 정상에 오르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킹스맨:골든 서클'은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1만9742명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예매 점유율은 20.1%, 예매 매출액은 1억9300만원이다.

'킹스맨:골든 서클'의 예매 열풍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예매 순위 상위권에는 현재

상영 중인 작품 중 박스오피스 선두를 달리는 영화가 이름이 울리거나, 해당 주차 개봉 영화 중 최고 기대작이 오른다.

오는 27일 개봉하는 '킹스맨:골든 서클'은 예매 순위 5위권 밖에 있는 게 보통이다.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걸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영화는 2015년 개봉한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의 후속편이다.

영화는 당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612만명을 끌어모아 큰 화제를

모았다. 전 세계 흥행 수익은 4억1400만 달러에 달했다.

'킹스맨:골든 서클'은 킹스맨 본부가 세계 범죄 조직 골든 서클에 의해 파괴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태런 에저튼·콜린 퍼스·마크 스트롱이 전작에 이어 출연하고, 줄리언 무어·할리 베리·채닝 테이텀·제프 브리지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총출동 한다.

한편 태런 에저튼·콜린 퍼스·마크 스트롱은 오는 20일 영화 홍보차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국내 언론과 기자회견을 갖고 레드카펫 행사·무대 인사 등에 참여할 예



정이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